

주간 통일정세

2018-17

Contents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2. 남북 교류협력

II. 북한정세

1. 정치
2. 군사
3. 경제
4. 사회문화
5. 외교국방

III. 동북아정세

1. 한반도 정세
2. 주변국 정세

IV. 북한인권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 북한인권 내부동향
3. 북한인권 남한동향
4. 탈북자 및 이산가족 남북자 국군포로
5. 대북지원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한반도 평화 및 협력

■ 개요

분류	일자	
평화 관련 주요 동향	4.23.	종교계 “남북정상회담, 세계평화 위한 전환점”(연합뉴스)
		이집트도 북한 핵실험 중단 환영...“한반도 평화 증진”(연합뉴스)
	4.24.	유엔 사무총장 “평화적 비핵화 통로 열렸다”(연합뉴스)
남북 교류협력	4.23.	남북관계 훈풍 속 강원도 남북교류 사업 ‘기지개’(연합뉴스)
		강원도가 남북교류 전초기지...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연합뉴스)
	4.25.	여의도순복음교회 “평양 심장병원 공사재개 합의”(연합뉴스)

■ 주간 동향

1. 평화관련 주요 동향

가. 남북한

2018. 4. 23.

■ 종교계 “남북정상회담, 세계평화 위한 전환점”(연합뉴스)

- 국내 7대 종단이 참여한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PR)는 “오는 27일 열릴 남북정상 회담과 5월 예정된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회담의 성공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함.
- KCPR은 23일 ‘봄이 옵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 정부에는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이자 중재자로서 책무를 다할 것을, 북측에는 이번 기회를 살려 우리 민족이 함께 살 길을 열어줄 것을 당부함.
- 또 미국 정부에는 북미대화에 적극 참여할 것을, 중국·러시아·일본 정부에는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과정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으며, KCPR은 “한반도에 국한되지 않고 온 인류에게 평화를 전해 줄 봄을 맞이하기 위해 7개 종교가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함께 기도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국제사회

2018. 4. 23.

■ 이집트도 북한 핵실험 중단 환영...“한반도 평화 증진”(연합뉴스)

- 이집트 정부가 최근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단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힘.
- 23일(현지시간) 이집트 일간 데일리뉴스이집트 등에 따르면 이집트 외교부는 지난 21일 성명으로 북한의 핵실험·ICBM 중단 선언에 대해 “이 진전은 한반도의 신뢰 구축 환경과 평화를 증진하고 한반도의 국민에 개발과 안정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이집트는 국제관계를 위협하는 무력 사용을 거부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국제분쟁에는 평화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8. 4. 24.

■ 유엔 사무총장 “평화적 비핵화 통로 열렸다”(연합뉴스)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3일(현지시간) 사흘 앞으로 다가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연합뉴스의 논평 요구에 “남북 지도자들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로 이어지는 진지한 대화를 재개하는 용감하고 중요한 임무에서 모든 성공을 거두길 기원한다”고 유엔사무총장 대변인실을 통해 밝힘.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또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를 위한 통로가 열렸다고 믿는다”면서 “그것(비핵화)이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함.
-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최근 남북이 청와대와 북한 국무위원회를 연결하는 정상 간 ‘핫라인’을 설치한 데 대해서도 “(남북이) 더 신뢰를 쌓고 이해의 차이를 좁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희망한다”면서 환영을 표시함.

2. 남북 교류협력

2018. 4. 23.

■ 남북관계 훈풍 속 강원도 남북교류 사업 ‘기지개’(연합뉴스)

- 강원도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민간 차원 교류사업의 재개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남북교류 재개 시 기존 진행했던 남북 강원도 차원의 교류 사업을 중심으로 점검을 마침.
- 도는 우선 남북교류 재개 첫 사업으로 말라리아 유행 시기(4~10월) 남북공동 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경기도, 인천시와 최근 실무 회의를 마치고 북한에 공동방역사업을 제안한 가운데 북측의 최종 응답을 기다리고 있음.
- 강원도는 6월 26~29일 평양에서 열리는 제4회 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U-15) 축구대회에 참가하고, 이와 함께 산림·보건·농업·사회문화 부문 남북교류 재개를 준비하며 신규 사업 발굴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 금강산 공동영농 협력 사업을 비롯해 북강원도 결핵 퇴치 지원 사업, 북강원도 연어방류사업, 금강산 솔잎혹파리 방제, 북측 황폐지 조림 생태복원사업, 남북문화 예술단 상시 교류 등을 준비 중임.

■ 강원도가 남북교류 전초기지…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연합뉴스)

- 강원도가 남북화해협력 분위기와 연계해 도정 중심을 ‘평화’에 두고 남북교류 전초

기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교류가 탄력을 받게 되면 평창올림픽이 남긴 최고·최대 유산인 평화를 통해 미래 통일을 향한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겠다는 구상이며, 남북교류 전초기지 사업의 중심은 강원평화특별자치도임.

- 금강산관광 재개를 비롯해 철원평화산업단지와 DMZ 일원 한반도생태평화벨트 조성, 남북 강원도 협력사업 등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음.
- 평화올림픽 유산으로 땅과 바다, 하늘에 남북 간 평화의 길 개설을 추진하는데,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일시 재개됐던 남북 하늘길과 바닷길, 육로를 이어 동북아 북방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전략임.

2018. 4. 25.

■ 여의도순복음교회 “평양 심장병원 공사재개 합의”(연합뉴스)

- 여의도순복음교회는 남북 관계 경색으로 중단된 평양 조용기심장전문병원 건립사업을 재개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고 25일 밝힘.
- 교회 측은 “북측 요청으로 이영훈 담임목사와 북한 조선병원협회 관계자들이 지난 달 중국에서 만나 의향서를 교환하고 건축 재개에 합의했다”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 관계와 국제 정세가 호전돼 북한에 물자가 들어갈 수 있게 되면 공사가 재개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함.
- 북한 측은 병원 건물 외에도 의과대 기숙사, 강의실 등도 건립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200여개 시·군 보건소 건립과 나무 심기 사업 등도 협의 중이라고 교회 측은 전함.

II 북한정세

■ 개요

분류	일자	
정치	4.21.	北, '핵개발 아이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비핵화 첫발 땀나(연합뉴스)
	4.22.	北대외경제성 부상, 리 연해주 인사 면담...“北노동자 문제 논의”(연합뉴스)
		北 고위간부들, 잇달아 “새 전략노선 지지”...경제발전 강조(연합뉴스)
	4.23.	‘대좌 강등’ 北장정남 전 인민무력부장, 상장 계급 달고 출현(연합뉴스)
		北노동신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적 구현해나가야”(연합뉴스)
	4.24.	北 김정은, 유커 32명 교통사고 직후 中대사관 찾아 위로(연합뉴스)
		北신문 “당 전원회의 결정, 평화로운 세계 건설 확고한 의지”(연합뉴스)
4.26.	김정은, 유커 시신 후송 전용열차 전송...“책임 통절히 느껴”(연합뉴스)	
4.27.	김정은 “대결역사 종지부 찍지”(연합뉴스)	
군사	4.24.	풍계리 핵실험장 사용 불능?...38노스 “완전가동 가능 상태”(연합뉴스)
		日언론 “北, 풍계리 핵실험장에 ‘비밀유자’ 위해 병력 잔류”(연합뉴스)
경제	4.25.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상품관 문 연다”(연합뉴스)
	4.26.	베트남내 북한식당 ‘때이른 남북화해 무드’...“빈자리 없다”(연합뉴스)
사회 문화	4.21.	北정찰총국요원, 유럽서 외교관 행세하며 핵개발 자금 불법 송금(연합뉴스)
	4.25.	“北, 17개국에서 ‘고스트 시크릿 작전’...은행 등 기반시설 해킹”(연합뉴스)
	4.26.	“북 집권층, 서방 SNS 접고 중국 인터넷서비스 이용”(연합뉴스)
외교 국방	4.21.	트럼프, 北핵·ICBM실험중단에 “아주 좋은 뉴스...정상회담 고대”(연합뉴스)
		메티스 美국방 “북한과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 검토 중”(연합뉴스)
		中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환영...중국도 적극적 역할”(연합뉴스)
		‘北핵실험 중지 발표에 日 미지근...“환영한다”면서도 “불충분”(연합뉴스)
	4.23.	트럼프 “북에 아무것도 양보 안했다...결론까지는 먼 길 남아”(연합뉴스)
	4.24.	백악관 “北 ‘완전한 비핵화’ 구체적 조치 없이는 제재해제 없다”(연합뉴스)
		中 “북한서 발생한 중국인 교통사고 김정은 직접 위문에 감사”(연합뉴스)
4.25.	트럼프 “북과 매우 좋은 논의 중...김정은 매우 열려있고 훌륭”(연합뉴스)	

김정은 공개활동 동향

일자	보도내용	수행자	비고
4.24.	주조 중국대사관 위로방문	-	-
4.26.	유커 시신후송열차 전송	박봉주	-
4.27.	북남수뇌상봉과 회담	김영남, 김영철, 최휘, 리수용, 리명수, 박영식, 리용호, 리선권, 김여정	-

■ 주간 동향

1. 정치

가. 김정은 동향

2018. 4. 24.

■北 김정은, 유커 32명 교통사고 직후 中대사관 찾아 위로(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뜻하지 않은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 온 중국 관광객들 속에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4월 23일 새벽 6시 30분 우리나라 주재 중국대사관을 방문하시고 심심한 위문의 뜻을 표시하시었다”고 보도함.
- 통신은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 관광객들 속에서 버스 전복 사고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하여 습근평(習近平·시진핑) 동지와 중국 당과 정부, 그리고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되는 위문과 심심한 애도의 뜻을 표시하시었다”고 전함.
- 중앙통신은 또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이날(23일) 저녁 병원을 찾으시어 부상자 치료 정형을 직접 요해(파악)하시었다”면서 “최고영도자 동지께서는 부상자들을 찾아가시어 따뜻이 위로하시고 환자들의 상태를 요해하시며 정부 병원의 의료성원들과 함께 앞으로의 치료 대책을 협의하시었다”고 전함.

2018. 4. 26.

■김정은, 유커 시신 후송 전용열차 전송...“책임 통절히 느껴”(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김정은 동지께서는 4월 25일 밤 평양역에 나가시어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사망한 중국인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을 후송하는 전용열차를 떠나보내셨다”고 보도함.
- 통신은 “최고 영도자(김정은) 동지께서는 중국인들의 시신과 부상자들을 빠른 시간 안에 중국 국내로 후송하였으면 한다는 중국 동지들의 제기를 받으시고 전용열차를 편성하도록 하셨으며 당과 정부의 책임간부들과 실무일꾼, 의료일꾼들이 동행하여 후송사업을 책임적으로 보장하도록 조치를 취하셨다”고 밝힘.
- 김 위원장은 평양역에서 시신 운반 준비상태를 돌아보고 열차에 올라 부상자들을 위로했으며, 리진권(李進軍) 주북 중국대사를 만나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와 사과의 뜻을 표했다고 통신은 전함.

- 특히 그는 자신과 북한의 당·정부가 이번 사고를 놓고 “책임을 통절히 느끼고 있다”며 “그 어떤 말과 위로나 보상으로도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아픔을 달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해 중국 동지들을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싶은 마음 뿐”이라고 언급함.

2018. 4. 27.

■ 김정은 “대결역사 종지부 찍자”(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27일 오전 관문점 남측지역 평화의 집 1층 환담장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과 가진 환담에서 “우리 사이에 걸리는 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과 무릎을 맞대고 풀려고 왔다”고 하며 “큰 합의를 해놓고 10년 이상 실천하지 못했다. 오늘 만남도 그 결과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발언함.
- 그러면서 “짧게 걸어오며 ‘정말 11년이나 걸렸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럼 우리가 11년간 못한 것을 100여 일 만에 줄기차게 달려왔다. 굳은 의지로 함께 손잡고 가면 지금보다 못할 수 있겠느냐”고 덧붙임.
- “이제 자주 만나자. 마음 단단히 굳게 먹고 다시 원점으로 오는 일이 없어야겠다. 기대에 부응해 좋은 세상 만들어보자.”고 밝힘.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2018. 4. 22.

■ 北대외경제성 부상, 러 연해주 인사 면담…“北노동자 문제 논의”(연합뉴스)

- 러시아를 방문한 리광근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이 21일(현지시간) 극동 연해주 주정부 주지사 권한 대행과 면담하고 경제 협력 확대 및 현지 체류 북한 노동자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주정부 공보실이 밝힘.
- 리 부상은 이날 타라센코 주지사 대행과의 면담에서 양국 국경을 따라 흐르는 두만강을 가로지르는 교량 건설 사업을 진전시키는 노력을 활성화하자고 제안했으며, 그는 “양국 경제·통상 협력 활성화를 위해선 운송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이미 실무그룹이 구성됐다”고 소개함.
- 리 부상은 이밖에 “북한과 연해주를 포함한 러시아 극동 지역과의 양자 경제 협력 확대는 북한 노동당과 정부의 변함없는 대외정책”이라고 강조하고 “북한 대표단이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에 참가할 것”이라고 밝힘.

2018. 4. 23.

■ **‘대좌 강등’ 北장정남 전 인민무력부장, 상장 계급 달고 출현(연합뉴스)**

- 지난 11일 대좌(우리의 대령급) 계급장을 달고 행사장에 등장했던 장정남 전 북한군 인민무력부장이 9일 만에 상장(별 3개)을 달고 공식 석상에 나온 것이 23일 확인됨.
- 조선중앙TV가 전날 방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영상에서는 장정남이 상장 계급장을 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을 경청하는 모습이 포착됨.
- 장정남은 이달 11일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최고수위’ 추대 6돌 경축 중앙보고대회 행사장에서 영관급인 대좌 계급장을 달고 야전 지휘관들 속에 섞여 앉아 있는 모습이 확인된 바 있음.
- 한 관계자는 “김정은 체제 들어 군 장성들이 별 2~3개를 한 번에 떼었다가 다시 붙여지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김정은은 그런 ‘별 정치’로 군부를 길들이고 있다”고 설명함.

다.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라. 주요 논조 및 성명

2018. 4. 21.

■ **北, ‘핵개발 아이콘’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비핵화 첫발 땀내(연합뉴스)**

- 북한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결정을 채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통신은 “주체107(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시험과 대륙간탄도로켓(ICBM) 시험발사를 중지할 것”이라는 내용이 명시됐다고 밝힘.
- 이와 관련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핵실험장을 폐기하고 핵실험·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비핵화를 향한 첫 단추인 핵동결이 시작된 것이라는 해석 있음.

2018. 4. 22.

■ **北 고위간부들, 잇달아 “새 전략노선 지지”…경제발전 강조(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2일 ‘당 중앙위원회 제7기 3차 전원회의 참가자들의 반향’이라는 제목

- 의 글에서 새 전략노선을 접한 노동당과 내각 고위간부들의 반응과 각오를 소개함.
- 박광호 노동당 부위원장 겸 선전선동부장은 신문 기고문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최고영도자(김정은) 동지를 진두에 높이 모시어 우리 당의 병진노선이 위대한 승리로 결속된 것처럼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 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노선도 반드시 승리하리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임철웅 내각 부총리도 기고문에서 새로운 당 노선에 대해 “우리 혁명 발전의 합법칙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한 가장 과학적인 노선”, “그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 현실적인 노선” 등으로 치켜세움.
 - 또 장철 국가과학원장은 “우리 과학자·기술자들은 첨단 돌파전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려 세계를 놀래우고 주체 조선의 국력을 과시하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연이어 창조함으로써 김정은 시대를 과학으로 흥하고 과학으로 번영하는 시대로 빛내겠다는 것을 굳게 결의한다”고 다짐함.
 - 한편 노동신문은 이날 2면에 게재한 ‘승리의 환희 하늘땅에 차 넘친다’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경제건설 대진군, 이것이 우리 앞에 펼쳐진 새 승리의 주로이며 혁명적 총공세의 거세찬 불길”이라며 “자력갱생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국력 강화의 최전성기를 펼쳤듯이 융성변영의 눈부신 열매들도 그 힘으로 거둬들여야 한다”고 강조함.

2018. 4. 23.

■ 北노동신문 “우리식 경제관리방법 전면적 구현해나가야”(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3일 1면에 게재한 사설에서 “(당 중앙위원회 4월 전원회의의 기본정신은) 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건설의 더 높은 목표를 앞당겨 점령하는 것”이라며 “사회주의 원칙을 구현한 우리 식의 경제관리 방법을 더욱 완성하고, 전면적으로 구현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이어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에서 경제사업을 우선시하며 경제발전에 나라의 인적, 물적, 기술적 잠재력을 총동원하여야 한다”면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는 당의 경제정책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들을 무조건 수행하는 데 총력을 집중하여야 한다”고 역설함.
- 이 신문은 “내각을 비롯한 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은 경제사업의 주인으로서의 위치를 바로 차지하고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짜고 들어 당에서 결정한 경제발전목표들이 반드시 달성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함.

2018. 4. 24.

■北신문 “당 전원회의 결정, 평화로운 세계 건설 확고한 의지”(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24일 ‘사회주의 위업 수행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회의’라는 제목의 글을 실고 “이번 전원회의의 중대한 결정은 우리 혁명에 유리한 국제적 환경을 주동적으로 마련해 나가는 조선노동당의 특출한 영도력의 일대 과시”라며 “자주적이고 평화로운 새 세계를 건설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핵무력 강화를 떠나서는 조선반도(한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였다”고 강조함.
- 신문은 또 이번 회의에서 결정한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지를 ‘중대한 조치’로 칭하며, ‘우리 국가와 인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게 된 기초’ 위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 건설에 적극 이바지하려는 우리 당의 평화 애호적 입장’이 뚜렷이 발현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세계는 우리 당과 인민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가 어떤 눈부신 결실을 안아오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밝힘.

2. 군사

가. 군사 및 핵미사일

2018. 4. 24.

■풍계리 핵실험장 사용 불능?...38노스 “완전기동 가능 상태”(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23일(현지시간) 북한이 폐쇄를 선언한 풍계리 핵실험장이 이미 사용불능 상태여서 ‘못 쓰는 카드’를 내민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과 관련, 핵실험장은 “완전 가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반박함.
- 38노스는 이날 논평을 통해 “북한이 6차례 지하 핵실험을 감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우리가 이는 한 여전히 ‘완전 가동 준비가 갖춰진’(fully operational) 상태”라고 밝힘.
- 38노스는 “지난 3월 초까지 새로운 굴착 작업이 서쪽 갱도 쪽에서 목격됐다”며 “그러나 이 공사는 3월 중순부터 축소됐으며 이달 초에는 거의 중지 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이는 공사가 완료돼 앞으로 새로운 핵실험을 할 준비가 됐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함.
- 38노스는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더는 핵실험을 실행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릴 근거는 없다”며 “평양의 명령만 내려지면 핵실험에 쓰일 수 있는 2개의 더 새것

같고 괜찮은 갱도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함.

■ **日언론 “北, 풍계리 핵실험장에 ‘비밀유지’ 위해 병력 잔류”(연합뉴스)**

- 북한이 함경북도 풍계리 핵실험장에 배치한 군부대를 철수시키면서도 일부 군병력은 비밀유지를 위해 남겨왔다고 일본 아사히신문이 24일 보도함.
- 아사히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주둔하던 19연대 소속 1천200여명의 병력 중 상당수를 지난달 초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켰다며 그러면서 300명 규모의 부대는 잔류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 이 소식통은 일부 병력이 기존 주둔지에 남게 된 이유에 대해 “잔류 방사성 물질과 실험재료 등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함.

나. 한국 및 미국

■ **특이사항 없음.**

3. 경제

가. 정책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경제 실태

2018. 4. 26.

■ **베트남내 북한식당 ‘때 이른 남북화해 무드’...“빈자리 없다”(연합뉴스)**

- 26일 현지 교민들에 따르면 베트남의 북한식당들의 분위기가 지난 3월 중순부터 달라짐.
-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데 이어 대북특사단의 방북으로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가시화하자 교민들이 북한식당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임.
- 고려식당 종업원은 ‘언제부터 다시 장사가 잘됐느냐’는 질문에 “요즘 손님이 많아졌다”고 밝혔으며, 고려식당에서 직선거리로 500~600m 떨어진 평양관도 저녁에는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성업 중임.
-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한 교민은 “남북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는 것은 맞지만 여전히 대북제재 국면인데 때 이른 감이 없지 않다”고 밝힘.

다. 대외 경제 관계

2018. 4. 25.

■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상품관 문 연다”(연합뉴스)

- 극동개발부는 25일(현지시간) 자체 웹사이트에 올린 보도문에서 전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리광근 북한 대외경제성 부상과 알렉산드르 크루티코프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 간 회담 결과를 소개하면서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 북한 상품관이 개설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식품, 의약품, 의료 장비, 화장품, 의복, 건설자재, 전자 제품, 예술품 등의 북한 상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상품관은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구역에 세워질 예정이며, 모스크바와 평양에 분관을 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극동개발부는 설명함.
- 개관 시점은 오는 9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개최되는 제4차 동방경제포럼(9월 11~13일) 때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4. 사회문화

가. 공식 발언 및 주요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라. 사회 동향

2018. 4. 21.

■ 北정찰총국요원, 유럽서 외교관 행세하며 핵개발 자금 불법 송금(연합뉴스)

- 유럽연합(EU)은 20일 관보를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또는 다른 WMD 관련 프로그램에 재정적으로 기여하는 자금이나 경제적 자원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해온 4명을 대북제재리스트에 추가했다며 이들의 이름과 직책, 그동안의 활동내용을 공개함.

- 이번에 제재리스트에 추가된 4명은 김용남(71세), 장철희(68세·여), 김수광(42세), 김경희(37세·여) 등으로, 이들은 부부와 아들, 며느리 관계인 것으로 드러남.
- EU 관보에 따르면 김용남은 UN으로부터 대북제재대상으로 지정된 정찰총국 소속으로, 그동안 유럽 국가에서 외교관 신분으로 활동하면서 그는 가명을 사용해 여러 은행 계좌를 만든 뒤, 아들인 김수광이나 며느리 김경희 이름으로 된 계좌를 포함해 EU 내에 있는 다른 계좌나 EU 외부의 계좌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규모 송금에 개입했다고 EU는 밝힘.
- 장철희는 남편 김용남, 아들 김수광, 며느리 김경희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및 다른 WMD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불법적인 금융 관행 패턴에 개입해왔으며, EU 내에서 여러 개의 은행 계좌를 갖고 있었고, 며느리 김경희 계좌로부터 EU 밖 다른 은행 계좌로 이뤄진 여러 차례의 송금에 관련된 것으로 드러남.

2018. 4. 25.

■ “北, 17개국에서 ‘고스트 시크릿 작전’…은행 등 기반시설 해킹”(연합뉴스)

- 지난달 북한 해커들의 소행으로 추정됐던 터키 은행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실상은 미국과 호주 등 17개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진 사이버 공격의 일부일 뿐이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5일 보도함.
- 사이버 보안업체 맥아피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달 북한의 해킹 활동이 17개국과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뤄진 사실이 확인됐다고 이를 ‘고스트 시크릿 작전’이라고 명명함.
- 맥아피는 보고서에서 지난달 14~26일 평양과 관련이 있는 해커들이 중요 사회기반 시설과 전기통신시설, 보건, 고등교육 등의 영역에서 민감한 정보를 탈취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으며, 피해를 본 국가나 기관의 이름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대부분의 사이버 공격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일어남.
- 맥아피는 또 특정 국가를 범죄자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기존 규정을 깨고, 사이버 공격에 사용된 악성코드나 범죄 대상이 된 사회기반시설이 유사하다는 것을 근거로 ‘고스트 시크릿 작전’의 주체가 북한과 관련이 있는 해킹 집단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라고 지목함.

2018. 4. 26.

■“북 집권층, 서방 SNS 접고 중국 인터넷서비스 이용”(연합뉴스)

- 특권층에 한정된 북한의 인터넷 이용자들이 지난해 말부터 서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을 사실상 중단하고 중국의 인터넷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25일(현지시간) 사이버 보안업체를 인용해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미국의 사이버 보안업체인 ‘레코디드 퓨처’(Recorded Future)는 이날 보고서를 통해 북한 집권층이 최근 몇 달 동안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서방의 SNS나 구글 서비스 이용을 사실상 중단했으며, 대신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나 인터넷서비스 업체인 텐센트(騰迅·팅션), 포털사이트인 바이두(百度) 등 중국 업체의 서비스 이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전함.
- 또 북한의 집권층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 중순까지 사이버상의 활동 추적을 피하기 위해 가상사설망(VPN) 이용 등 난독화 기법을 활용한 인터넷 활동을 1천 200% 늘렸다고 분석함.

5. 외교국방

가. 북·미 관계

2018. 4. 21.

■트럼프, 北핵·ICBM실험중단에 “아주 좋은 뉴스…정상회담 고대”(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의 발표가 나온지 한 시간 여 뒤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 “북한이 핵실험을 모두 중단하고 주요 핵실험 부지를 폐쇄하는 데 합의했다”면서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라며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밝힘.
-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는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을 묻는 연합뉴스의 서면질문에 “대통령이 트윗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 논평으로 같음한다는 입장을 밝힘.
- 국무부 관계자 역시 “대통령이 트윗에서 밝힌 대로 북한과 전 세계에 매우 좋은 뉴스로 큰 진전이다. 우리의 정상회담을 고대한다”고 말함.

■매티스 美국방 “북한과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 검토 중”(연합뉴스)

- 교도,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의 미국 국방부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을

- 만난 뒤 “우리는 (북한과의) 평화로 가는 새로운 길을 조심스럽게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동시에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언함.
- 매티스 장관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최대의 압박을 계속 전면적으로 이행하며, 일본 지도부가 선박 대 선박으로 이뤄지는 대북 석유류 이전을 막기 위해 공해(公海)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시행한다는 데 있어 찬사를 보낸다”고 덧붙임.

2018. 4. 23.

■트럼프 “북에 아무것도 양보 안했다…결론까지는 먼 길 남아”(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비핵화 문제와 관련, 북한은 양보한 게 없고 미국만 북한에 많이 내줬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가짜뉴스’로 일축,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비핵화에 합의했다고 주장하며, “결론을 도출하기까지는 아직 먼 길이 남아 있다”고 밝힘.
-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NBC방송 진행자인 척 토드의 방송 내용을 언급하며 “가짜뉴스 NBC의 졸린 눈을 한 척 토드가 우리가 북한과의 협상에서 너무 많은 걸 포기했고 북한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다고 방금 말했다”고 전함.
-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고, 그들이 비핵화(세계를 위해 매우 훌륭한 일)와 실험장 폐기, 실험 중단에 합의했다”고 강조함.

2018. 4. 24.

■백악관 “北 ‘완전한 비핵화’ 구체적 조치 없이는 제재해제 없다”(연합뉴스)

-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23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완전한 비핵화에 못 미치더라도 제재해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분명히 목표는 한반도의 비핵화”라며 “완전하고 전면적인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 조치가 취해지는 걸 볼 때까지 최대 압박작전을 계속해나갈 것이다. 비핵화를 향한 북한의 구체적 조치를 볼 때까지 분명히 제재는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그는 특히 “우리는 북한 사람들의 말을 단순히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며 “우리는 이 과정에서 순진하지 않다”고 강조하고, 이어 “우리는 몇 가지 조치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취해지는 걸 봤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분명히 우리는 과거 행정부들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임.

2018. 4. 25.

■ **트럼프 “북과 매우 좋은 논의 중…김정은 매우 열려있고 훌륭”(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우리는 그들(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직접 들어왔다”며 “이는 전 세계와 북한, 한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모두를 위해 훌륭한 일”이라고 밝힘.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을 국빈방문 중인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우리는 곧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예정”이라며 “우리는 그들(북한)이 가능한 한 빨리 만나고 싶어한다는 것을 직접 들어왔다. 이는 전 세계와 북한, 한국, 일본, 프랑스, 그리고 모두를 위해 훌륭한 일”이라고 밝혔다.
-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김 위원장에 대해 “정말로 매우 많이 열려있고 우리가 보는 모든 점에서 매우 훌륭하다”고 언급함.

나. 북·중 관계

2018. 4. 21.

■ **中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환영…중국도 적극적 역할”(연합뉴스)**

- 중국 외교부는 21일 루강(陸慷)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통해 “중국은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경제 발전과 인민 생활 수준 향상에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힌 데 대해 환영을 표한다”고 밝힘.
- 루 대변인은 “북한의 이번 결정은 한반도 정세를 한층 더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에도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이어 “한반도 비핵화와 역내 장기적인 평화를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와 지역 내 국민의 공동 이익에도 부합한다”면서 “또한 국제사회의 공통 기대에도 부합한다”고 강조함.
- 루 대변인은 또 “유관 각국이 서로 마주 보고 가면서 적절한 행동을 하기를 희망한다”며 “지역 내 항구적인 평화와 공동 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행동을 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은 계속해서 이를 위해서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겠다”고 덧붙임.

2018. 4. 24.

■中 “북한서 발생한 중국인 교통사고 김정은 직접 위문에 감사”(연합뉴스)

- 루강(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23일 오전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 와서 위문하고 중국 대사에게 시진핑 국가주석과 중국 공산당, 정부, 인민 그리고 사상자 유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했다”고 밝힘.
- 루 대변인은 “당일 저녁 김정은 위원장은 직접 병원에 가서 중국인 부상자 2명을 만나 북한 측이 전력을 다해 치료하고 중국 측과 사후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면서 “중국은 김 위원장이 북한 주재 중국대사관에 와서 위문하고 병원의 부상자들을 방문한 것에 감사한다”고 밝힘.
- 그는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중국은 북한 측과 함께 전력을 다해 구호 및 치료 조치를 했고 북한 측도 유관 부서를 동원해 행동에 나섰으며 북한 당과 국가 지도자, 유관 부서 책임자들이 현장을 진두지휘했다”고 설명함.

다. 북·일 관계

2018. 4. 21.

■‘北핵실험 중지’ 발표에 日 미지근…“환영한다”면서도 “불충분”(연합뉴스)

- 북한이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실험 중지와 핵실험장 폐기를 발표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는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불충분하다는 반응을 보임.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북한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움직임”이라며 “다만 중요한 것은 이런 움직임이 핵과 대량파괴 무기, 그리고 미사일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로 이어질 것인지 여부”라며 “이를 확실히 주시하겠다”고 강조함.
-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 역시 “1보 전진이라고 생각한다”며 “핵·미사일 포기를 향해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힘.
- 반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만족할 만한 발표는 아니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는데, “중·단거리 탄도미사일의 포기와 관련한 언급이 없으며 핵 포기에 대한 발언도 없다. 이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밝힘.

라. 북·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마. 북·기타국가 관계(국제기구 포함)

- 특이사항 없음.

Ⅲ 동북아정세

■ 개요

1. 한반도정세

분류	일자	한국	미국
한미 관계	4.23.	한미, 고위급협의회서 “비핵화·항구적 평화정착 공조하자” 확인(연합뉴스)	
	4.25.		주한美대사로 부상한 해리 해리스는…北·中에 강경한 ‘지일파’(연합뉴스)
	4.26.	한미 독수리연습 오늘 ‘종료’…정상회담일 키리졸브연습도 중단(연합뉴스)	
	4.27.		美 국무차관보 대행 “트럼프, 한국전쟁 종결 항구 해결책 지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중국
한중 관계	4.25.		中매체 “한중,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함부로 못하게 압력 가해야”(연합뉴스)
	4.27.		中외교부 “남북정상회담 성공 희망…올바른 해법의 길 열리길”(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일본
한일 관계	4.23.	이도훈 “한일 협의 지속…北비핵화 진전 이루기틀”(연합뉴스)	
	4.24.	한일정상, 남북회담 앞두고 통화…“북핵 폐기 위해 연대”(연합뉴스)	
	4.26.		日의 남북정상회담 깎아내리기…야베 측근 “화려한 정치쇼”(연합뉴스)
	4.27.		日정부 “韓정부 노력 칭찬…남북 정상, 핵미사일 포괄해결 기대”(연합뉴스)
분류	일자	한국	러시아
한러 관계	4.26.		러시아 국가안보실장 “남북한 화해 행보지지”(연합뉴스)

2. 주변국정세

분류	일자	미국	중국
미중 관계	4.23.	미군 병력 39년만에 대만 재진주...美 중국에 또 '대만카드'(연합뉴스)	
	4.24.		中 주도 상하이협력기구 외교장관들, 美겨냥 일방주의 비난(연합뉴스)
	4.25.	미중 무역갈등 풀리나...트럼프 장관 등 美경제사절단 대거 방중(연합뉴스)	
	4.26.	미국, 중국 코밑에 B-52 전개...中 대만 위협 견제(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일본
미일 관계	4.21.	록히드마틴, 일본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설계도 제공 추진(연합뉴스)	
	4.22.		"미일, 통상 협상 6월 이후 개최기로...난항 예상"(연합뉴스)
	4.26.	주한美대사 거론 해리스 "北압력유지에 한미일·우방 연대 중요"(연합뉴스)	
분류	일자	미국	러시아
미러 관계	4.24.	주러 미국 대사 "트럼프, 푸틴과 개인적 협력 원해"(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일본
중일 관계	4.23.		日 "中 해경국 선박, 센카쿠 열도 영해 진입"(연합뉴스)
분류	일자	중국	러시아
중러 관계	4.24.		러·중 외무 회담... "한반도 정세 진전 전적으로 지원기로 합의"(연합뉴스)
분류	일자	일본	러시아
일러 관계			특이사항 없음.

■ 주간 동향

1. 한반도정세

가. 한·미 관계

2018. 4. 23.

■ 한미, 고위급협의를 “비핵화 항구적 평화정착 공조하자” 확인(연합뉴스)

- 외교부에 따르면 강경화 외교장관과 윤순구 외교차관보, 천해성 통일 차관은 북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진인 수전 손턴 동아태차관보 대행과 번갈아 가며 만나 대북정책을 조율하고 대응책을 논의함.
- 우선 강 장관은 손턴 대행에게 남북·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미 외교채널 간 긴밀한 소통 및 공조 유지를 당부하며, 현재 인준 절차가 진행중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지명자가 취임하면 양국 외교부 장관 간 가급적 조기에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함.
- 이에 손턴 대행은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해 한미 외교당국간 빈틈 없는 긴밀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고, 국무장관 인준이 이뤄지는 대로 강장관과 조속히 소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함.

2018. 4. 25.

■ 주한美대사로 부상한 해리 해리스는…北·中에 강경한 ‘지일파’(연합뉴스)

- 24일(현지시간)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해리 해리스 전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은 아시아계 미국으로선 첫 해군 제독으로 진급한 인물로 지난 2월 주(駐) 호주 대사로 지명된 상태였으나, 백악관 고위관계자는 해리스 전 사령관을 주한국 대사로 재지명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를 비롯한 외신 상당수가 이날 보도함.
- 해리스 사령관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중국의 패권 확장을 견제하는 성격의 아시아 재균형 전략을 실질적으로 지휘한 인물로, 대북·대중 강경파로 분류되며 과거 아시아 지역의 최대 안보 위협으로 북한을 꼽고, 영토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문제를 ‘규범’에 근거한 아시아태평양 질서에 도전하는 중대한 요인이라는 인식을 보임.
- 2016년 인터뷰 당시 그는 북한 핵·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위협 등을 이유로 들어 “내가 매일매일 직면하는 최대위협은 바로 북한이다. 지금까지 중국을 최대위협이라고 말해왔지만, 지금은 북한이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한바 있고, 지난 3월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해리스 사령관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정권이 핵 무기 보유를 통해 한반도를 적화통일하려 한다는 자신의 입장을 거듭 밝힌 바 있음.

2018. 4. 26.

■ **한미 독수리연습 오늘 '종료'...정상회담일 키리졸브연습도 중단(연합뉴스)**

- 한미 양국 군이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하루 앞둔 26일 대규모 연례 군사훈련인 독수리(FE) 연습을 사실상 종료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밝혔다.
- 한미 군은 이번 회의에서 독수리 연습 종료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지며 이는 남북 정상회담이 평화적인 분위기에서 치러지도록 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게 군 안팎의 관측임.
- 한미 군은 지난 1일 독수리 연습을 시작했다. 당시 한미 군은 독수리 연습을 4주 동안 한다고 밝혔으나 종료 날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음.

2018. 4. 27.

■ **美 국무차관보 대행 “트럼프, 한국전쟁 종결 항구 해결책 지지”(연합뉴스)**

- 수전 손턴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대행(지명자)이 일본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대통령이 한국전쟁을 종결시키는 항구적인 해결책을 지지한다”고 말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함.
- 손턴 대행은 전날 도쿄(東京)도내에서 기자들에게 “남북 정상회담이 사태를 진전시킬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그는 “우리들(미국)은 북한의 체제 변화와 사회 붕괴, 남북통일의 가속을 야기할 생각은 없다”며 북한이 요구하는 체제 보장에 관해 긍정적인 생각을 밝히기도 함.
- 손턴 대행은 다만 북한이 종전 선언을 주한미군 철수와 미국의 군사행동 억지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북한과의 교섭 역사를 돌아보면 우리들은 (이런 의도를) 깊게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경계하며 “(남북 정상회담이) 북한이 어느 정도 진정성을 갖고 대처하고 있는지 테스트할 최초의 기회”라고 덧붙였다.

나. 한·중 관계

2018. 4. 25.

■ **中매체 “한중, 미국이 한반도 문제 함부로 못하게 입력 가해야”(연합뉴스)**

- 25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국·영문 자매지인 환구시보(環球時報)와 글로벌 타임스는 사설에서 “미국은 북한의 핵 폐기만 중요하지 핵 실험 중지 과정에는 관심이 없다”면서 “그러나 중국과 한국은 그렇지 않으며 양국은 평온함을 원한

- 다”고 지적함.
- 이들 매체는 “미국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비핵화 목표를 실현하겠다는 입장은 중국도 한국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미국 때문에 한반도 정세는 아직도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함.
 - 이어 “미국은 북한과 대화와 담판을 유지해야 하며 여기에 어떠한 조건도 설정해서는 안 된다”면서 “북한도 핵 및 미사일 실험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이를 가지고 미국과 한국에 압력을 주면 안 된다”고 경고함.

2018. 4. 27.

■ **中외교부 “남북정상회담 성공 희망…올바른 해법의 길 열리길”(연합뉴스)**

-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냐는 평론을 요구받고 남북 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국은 이번 회담이 성공하기를 바란다고 밝힘.
- 화 대변인은 “내일(27일)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는 가운데 남북 양국이 적극적으로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 양국이 성공을 거두기를 희망한다”고 말하며, 이어 “한반도 문제에서 계속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또 이를 통해 문제 해결의 올바른 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임.
- 중국 당국뿐 아니라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와 중앙(CC)TV 등 주요 관영 매체들도 연일 남북 정상회담의 준비상황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서울과 평양 시민의 인터뷰를 전하는가하면 청와대에서 발표한 회담 일정 등도 실시간 속보로 보도하는 등 이번 회담에 큰 관심을 보임.

다. 한·일 관계

2018. 4. 23.

■ **이도훈 “한일 협의 지속…北비핵화 진전 이루기를”(연합뉴스)**

-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3일 “남북·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한일이 이와 같은 협의를 계속하고, 그럼으로써 북한 비핵화에 있어 중요한 진전(significant progress)을 이루기를 희망한다”고 말함.
- 이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도림동 외교부 청사에서 가진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의 한일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에서 “가까운 미래에 남북 정상회담과 이어지는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함.

- 이 본부장은 그러면서 “(최근) 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알려주기 위해 방한을 해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상회담 이후 곧바로 방한한 것이 우리가 얼마나 가깝게 협력하는지 명확히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2018. 4. 24.

■ 한일정상, 남북회담 앞두고 통화…“북핵 폐기 위해 연대”(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4일 오후 전화 통화에서 북한의 핵폐기를 위해 밀접하게 연대하고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고 교도통신이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함.
- 통신은 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북한 정세를 둘러싼 움직임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일, 한미일 사이에서 밀접하게 연대하고 싶다”고 하며 내달 9일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미래지향의 한일관계 구축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함.
- 아베 총리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미일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2018. 4. 26.

■ 日의 남북정상회담 깎아내리기…아베 측근 “화려한 정치쇼”(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정국에서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6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의 측근인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보좌관은 현지 정책연구기관 강연에서 이같이 밝히며 또한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아주 화려한 정치쇼’라고 밝히는 등 남북간 화해분위기에 어깃장을 놓는 발언도 함.
- 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한 압력을 유지하고, 북한이 일본에 대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만들겠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가와이 보좌관은 덧붙였다.

2018. 4. 27.

■ 日정부 “韓정부 노력 칭찬…남북 정상, 핵미사일 포괄해결 기대”(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27일 남북 정상의 만남과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 한국 정부의 노력에 찬사를 보내며 두 정상의 진지한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힘.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 기자회견에서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간에 진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된다”며 “오늘

- 회담의 현실에 이르기까지 한국 정부의 노력을 칭찬하고 싶다”고 말함.
- 그는 그러면서 “우리나라(일본)로서는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향해 긍정적인 논의가 행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임.

라. 한·러 관계

2018. 4. 26.

■ 러시아 국가안보실장 “남북한 화해 행보지지”(연합뉴스)

-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우리의 국가안보실장 격)는 이날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가 지구 상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이라고 말했을 것이며 그곳에서 국제 정세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군사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 상황은 변했고 남북한이 서로 화해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함.
- 니콜라이 파트루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서기(우리의 국가안보실장 격)는 이날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반도가 지구 상에서 가장 긴장된 지역이라고 말했을 것이며 그곳에서 국제 정세를 크게 악화시킬 수 있는 군사행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오늘 상황은 변했고 남북한이 서로 화해 행보를 하고 있다”고 말함.
- 그는 러시아와 중국이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단계적 해결 방안을 담은 ‘로드맵’을 제안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북한의 최근 핵실험 중단 발표는 로드맵에 부합한다”며 “앞으로 그들(관련국들)이 이 길을 따라 나아간다면 이는 좋은 일이며 우리는 이것을 환영할 것”이라고 강조함.

2. 주변국정세

가. 미·중 관계

2018. 4. 23.

■미군 병력 39년만에 대만 재진주…美, 중국에 또 ‘대만카드’(연합뉴스)

- 미국이 대만에 두고 있는 대사관격인 미국재대만협회(AIT) 신축건물에 해병대 병력을 주둔시키기로 한 것으로 전해짐.
- 23일 홍콩 성도(星島)일보에 따르면 미국은 해외 주재 대사관 기준에 맞춰 오는 6월 준공 예정인 AIT 타이베이 사무처 신청사의 경비를 미국 해병대 병력에 맡기기로 했는데, 이는 미군 병력이 대만에서 철수한 지 39년 만에 다시 대만에 진주하게 되는 것임.
- 미국은 1951년부터 1979년까지 대만에 군사고문단과 연합방위사령부를 두고 대규모의 육·해·공군 병력을 주둔시키다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한 뒤로 대만 주둔군을 철수시켰음.

2018. 4. 24.

■中 주도 상하이협력기구 외교장관들, 美겨냥 일방주의 비난(연합뉴스)

- 중국 주도로 설립된 상하이협력기구(SCO) 외교부 장관들이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를 비난하며 유엔 헌장 등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고 나섬.
- 24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王毅)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비롯해 키르기스스탄, 파키스탄, 러시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외교장관은 이날 베이징(北京)에서 SCO 외교장관 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성명을 채택함.
- 이들 장관은 성명에서 “현재 전 세계가 다극화되고 글로벌 경제의 심화 발전으로 국가 간 상호 연계와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면서 “아울러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이라는 리스크와 정치적 긴장, 지역적 위기와 충돌이 상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어 “일방적인 제재를 수단으로 주권 국가에 정치 및 경제적 압박을 하는 불량한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다자주의를 통해 주요 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보완함으로써 각종 위협과 도전에 대응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 공영을 해야 한다”고 밝힘.

2018. 4. 25.

■미중 무역갈등 풀리나…트럼프 장관 등 美경제사절단 대거 방중(연합뉴스)

-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 미국의 경제·무역수장들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양국 무역갈등의 해법이 도출될지 주목됨.
- AFP,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므누신 장관과 라이트하이저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무역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수일 내로 중국에 갈 것”이라고 확인함.
 -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아주 진지한 것 같다. 우리도 진지하다”며 “그들(중국)의 요청에 따라 사절단을 보내려고 한다”고 말하고, 또 양국이 무역분쟁과 관련해 합의에 도달할 “아주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강조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자신의 관계가 “아주 좋다”(excellent)고도 표현함.

2018. 4. 26.

■미국, 중국 코밑에 B-52 전개…中 대만 위협 견제(연합뉴스)

- 대만 연합보는 괌의 미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전략폭격기 B-52 두 대가 지난 24일 대만과 필리핀 사이의 바스해협을 거쳐 남중국해 북부의 동사(東沙·프라타스)군도 부근까지 접근한 다음 회항했다고 26일 보도함.
- 폭격기 편대는 중국 광둥(廣東) 해안에서 250km 떨어진 지점까지 접근했는데 이번 에 접근한 B-52는 지난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기 와중에 여러 차례 한반도로 출격해 위력을 과시했던 폭격기로도 잘 알려져 있음.
- 이에 대해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대만관공실 대변인은 전날 “중국 해군의 최근 대만해협 훈련은 대만독립 세력이 계속 망동을 부린다면 진일보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라고 말함.

나. 미·일 관계

2018. 4. 21.

■록히드마틴, 일본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설계도 제공 추진(연합뉴스)

-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일본에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의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이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한바에 따르면, 록히드마틴은 이 같은 방안을 이미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과 논의했으며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는 대로 공식 제안을 할 계획임.
- 미국의 방산업체는 민감한 군사 기술을 외국에 넘길 때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특히, 이 설계도는 수출이 금지된 전략무기인 ‘F-22 랩터’와 ‘F-35 라이트닝 2’의 설계를 바탕으로 한 것이어서 미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됨.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무기 수출 정책 기조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변화를 모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 상황을 잘 아는 한 소식통은 로이터에 일본에 공급을 제안할 설계기술이 “F-22와 F-35를 결합한 것일 테고, 그 두 전투기보다 우월할 수도 있다”고 말함.

2018. 4. 22.

■“미일, 통상 협상 6월 이후 개최키로…난항 예상”(연합뉴스)

- 최근 미일 정상회담이 양국 무역과 투자 방식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양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첫 협의를 6월 이후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며 이번 협의는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이끌 전망이라고 NHK가 22일 전함.
- 일본 측은 현 정기국회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고 미국 측은 캐나다, 멕시코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을 진행 중이어서 양측 통상 협상 개시 시점을 6월 이후로 조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번 협의에서 일본은 미국이 TPP에 복귀하는 것을 포함해 TPP에 준하는 형태의 규칙 만들기 등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미국은 대일 무역적자 감축을 위한 즉각적 대응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고 NHK는 덧붙임.

2018. 4. 26.

■주한美대사 거론 해리스 “北압력유지에 한미일·우방 연대 중요”(연합뉴스)

- 주한 미국대사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해리 해리스 태평양사령부(PACOM) 사령관이 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와 총리관저에서 만난 자리에서 “대북 압력 유지에 한·미·일과 우방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 아베 총리는 “미·일 동맹 강화에 앞으로도 공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으며, 해리스 사령관은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개인적 관계가 동맹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말함.
- 이에 앞서 해리스 사령관은 방위성에서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을 만난 자리에서, 오노데라 방위상은 “북핵·미사일과 납치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대북 압력을 늦추지 않는 것이 미·일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거론했고 이에 해리스 사령관은 “한미일 3개국이 다른 우방과 함께 북한에 계속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도 지금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고 NHK는 덧붙임.

다. 미·러 관계

2018. 4. 24.

■ 주러 미국 대사 “트럼프, 푸틴과 개인적 협력 원해”(연합뉴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개인적으로 협력하고 미-러 관계를 좀 더 예측 가능하고 견고하게 만들길 원한다고 러시아 주재 미국 대사가 24일(현지시간) 밝혔다.
-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극동 지역을 방문한 존 헨츠먼 주러 미국 대사는 현지에서 기자들을 만나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그를 만날 때마다, 그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미-러 관계가 좀 더 효율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개인적으로 푸틴 대통령과 협력하길 원한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고 전함.
- 헨츠먼은 ‘제2의 냉전’으로 불리는 현재의 미-러 긴장 관계에 대해 “이 상황이 일시적이길 바라며, 양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얻어 예전의 외교 수준으로 복귀하길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우리 대통령은 양국 관계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이며 견고해지길 진실로 원하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도 그런 쪽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함.

라. 중·일 관계

2018. 4. 23.

■ 日 “中 해경국 선박, 센카쿠 열도 영해 진입”(연합뉴스)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께 중국 해경국 선박 4척이 일본 측 영해에 진입한 것을 확인함.
- 일본 정부는 총리관저 위기관리센터에 설치된 정보연락실을 관저대책실로 전환, 정보 수집과 경계 감시에 나서며, 외무성은 도쿄(東京)에 있는 중국대사관 공사에게 “센카쿠열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로, 영해 침입은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전화로 항의하고 인근 해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함.

마. 중·러 관계

2018. 4. 24.

■ 러·중 외무 회담…“한반도 정세 진전 전적으로 지원키로 합의”(연합뉴스)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을 방문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23일(현지시간) 베이징에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 회담한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최근 들어 긍정적 진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상세히 논의했다”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 많은 부분에서 러-중 ‘로드맵’ 조항들에 부합한다는 점에 입각하고 있다”고 밝힘.

- 이어 “모든 관련국이 동시적으로 호응하는 행보를 취하고 어떤 도발적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한다”면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 진전을 전적으로 지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함.
- 러-중 로드맵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탄도미사일 시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핵과 미사일의 비확산을 공약하면, 한미 양국도 연합훈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1단계에서부터, 북미, 남북한 간 직접 대화로 상호 관계를 정상화하는 2단계를 거쳐, 다자협정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동북아 지역 안보체제 등을 논의하는 3단계로 이행해 가는 단계별 구상을 담고 있음.

바. 일·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V 북한인권

■ 개요

분류	일자	
북한인권 국제동향	4.24.	휴먼라이츠워치 “남북 정상회담, 인권문제 제기해야”(자유아시아방송)
		유엔특별보고관 “북 인권 눈감으면 비핵화도 불안정”(연합뉴스)
	4.25.	日 외무성 “남북자 문제해결이 북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연합뉴스)
		국경없는기자회 “북 언론자유 세계 최악… AFP도 통제”(자유아시아방송)
	북미정상회담 앞서 ‘북한인권법 연장안’ 미 상원 만장일치 통과(연합뉴스)	
북한인권 내부동향		특이사항 없음.
북한인권 남한동향		특이사항 없음.
탈북자 이산가족 남북자 국문포로	4.22	“이번이 죽기전 마지막 기회”…CNN,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조명(연합뉴스)
대북지원	4.25.	스위스 “제재에도 올해 760만 달러 대북지원 예정”(자유아시아방송)
	4.26.	“국제사회 대북지원에 유엔 대북제재 여파 커”(자유아시아방송)

■ 주간 동향

1. 북한인권 국제동향

2018. 4. 24.

■ 휴먼라이츠워치 “남북 정상회담, 인권문제 제기해야”(자유아시아방송)

-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는 한국 정부가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재고하길 촉구함.
- 휴먼라이츠워치는 24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은 지난달 말 북한에 핵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인권 기록을 개선하라는 한국 강경화 외교장관의 발언을 공개적인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함.
- 성명은 또 지난 10일 휴먼라이츠워치 등 40여 개 민간 단체가 전 세계 200여개 민간 단체를 대신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유엔의 북한인권 개선 권고를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함.

2018. 4. 25.

■ 유엔특별보고관 “북 인권 눈감으면 비핵화도 불안정”(연합뉴스)

- 토마스 오헤아 키타나 유엔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2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향후 몇 주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는 각국 정상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촉구함.
- 키타나 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최소한의 생활 수준에 대한 요구를 도외시하고 눈감으면 비핵화 협상도 불안정하게 남는다”며 “인권을 지켜야 갈등을 막고 평화를 조성할 수 있다”고 발언함.
- 키타나 보고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유엔 조사를 수용하고 남북 이산가족상봉, 남북 외국인 석방, 북한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 제재 등을 다룰 것도 아울러 촉구함.

■ 日 외무성 “납북자 문제해결이 북일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연합뉴스)

- 일본 외무성 간부가 일본인 납북자 문제의 진전이 북일 정상회담 개최의 전제 조건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5일 보도함.
- 일본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은 전날 자민당의 외교부회(외교위원회) 회의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다면 납북문제의 해결을 (먼저)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발언함.

-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로부터 “납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북일 정상회담이라는 방법밖에 없다”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고 마이니치는 보도함.

■국경없는기자회 “북 언론자유 세계 최악… AFP도 통제”(자유아시아방송)

- 프랑스에 기반을 둔 ‘국경없는 기자회(RSF)’의 다니엘 배스터드(Daniel Bastard)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Head of Asia-Pacific Desk)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주민들이 외국 언론을 접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동 교화소에 보내는 가혹한 언론 탄압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국경없는 기자회는 이번 조사대상 180개국 중 북한을 180위로 꼽아, 17년 연속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지목함.
- 배스터드 국장은 북한 당국이 2016년 9월 개설된 세계 3대 뉴스통신사 중 하나인 프랑스의 AFP통신 평양지국에도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함.

2018. 4. 26.

■북미정상회담 앞서 ‘북한인권법 연장안’ 미 상원 만장일치 통과(연합뉴스)

- 기존 북한인권법을 오는 2022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 2061)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본회의를 만장일치로 통과됨.
- 공화당 마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지난해 9월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안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내부 변화를 촉발하기 위해 북한에 외부세계의 정보유입을 확산시키기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특징임.
- 해당 법안은 대북 정보유입 기기의 종류를 기존 라디오 이외에도 USB와 마이크로 SD카드, 음성·영상 재생기기, 휴대전화, 와이파이 무선인터넷, 무선 전기통신 등 정보 공유에 활용할 수 있는 전자 매체로 확대했으며, 미 정부가 이 같은 정보 수신 장치를 북한에 유통하거나 개발하는 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함.

2. 북한인권 내부동향

■특이사항 없음.

3. 북한인권 남한동향

- 특이사항 없음.

4. 탈북자 및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2018. 4. 22.

- “이번이 죽기전 마지막 기회”...CNN, 이산가족 상봉 가능성 조명(연합뉴스)
 - 미국 CNN 방송이 남북정상회담을 닷새 앞두고 “일부 실향민들에게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조명함.
 - CNN은 문재인 대통령이 2004년 이산가족 상봉행사 때 어머니를 모시고 금강산을 방문, 생면부지의 막내 이모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문 대통령처럼 절실하게 압박을 받는 사람도 많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함.
 -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음.

5. 대북지원

2018. 4. 25.

- 스위스 “제재에도 올해 760만 달러 대북지원 예정”(자유아시아방송)
 - 스위스 정부가 올해 미화 760만 달러가 넘는 규모의 대북지원을 통해 식수 위생과 식량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 스위스 외무부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올해 북한에서 760만달러 이상 규모의 지원 사업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힘.
 - 스위스 외무부는 “스위스는 2012년부터 북한에서 엄격한 인도주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모든 대북 사업은 유엔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며 “2018년 예산은 2017년 예산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함.

2018. 4. 26.

- “국제사회 대북지원에 유엔 대북제재 여파 커”(자유아시아방송)
 - 카타리나 젤위거 스탠포드대학 국제안보협력센터(CISAC) 연구원은 25일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의 초청으로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상황에 대해 강연함.

- 2006년부터 5년 간 스위스 개발협력처(SDC) 평양 사무소장으로 일한 켈위거 연구원은 2015년 홍콩에 기반한 비영리기구를 설립한 이후 대북 지원 활동사항을 소개하며 유엔 대북제재 여파를 경험하고 있다고 소개함.
- 유엔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켈위거 연구원의 발언에 이어 다른 비영리기구 관계자들도 같은 입장을 나타냈으며, 유엔 산하 인도주의 부서의 한 관계자는 “유엔 기구들도 대부분 북한으로의 송금 문제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은행들이 거래를 꺼려한다”고 발언함.